

이샤위의 論文을 보면 “日本과 구라파를 비교하여 보면 封建制度란 공통점 때문에 日本에서의 近代化가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샤위는 中國과 日本의 近代化를 比較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 中國과 韓國의 條件이 비슷하므로 近代化가 늦은 것이 아닙니까”하는 질문입니다.

< 洪 >

라이샤위의 論文이 中央公論에 나왔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직 못 보았습니다. 本質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 條件이 됩니다. 日本의 封建制와 Europe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日本은 極東에 있어 獨特한데 城廓을 예를 들면 中國과 韓國은 나성이고 그안에 宮殿이 있고 商人이나 住民이 사는데 日本은 古代에는 都市制度를 가졌으나 中世 封建社會의 發展단계에는 領主를 中心한 城廓이 形成됩니다. 그리고 中國式 나성이 없어집니다. Europe에서의 封建領主의 城과 日本의 그것과는 비슷합니다. 城아래에 都市가 發達하는데 이것은 極東에 日本만 있는 例입니다. 이것이 社會構造 乃至 產業發達에 中國과 韓國에 比하여 日本이 獨特한 것입니다. 저 自身도 이런 것이 한 條件이 된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文字化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西洋人이 먼저 整理하고 文字化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質 問 >

日本과 中國·韓國의 近代史에 根本적으로 다른 것은 武士階級을 爲始한 封建制度와의 關係되는 것이 日本에게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데요?

< 洪 >

武士精神이 日本을 近代化시켰나 아닌가는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西洋사람은 흔히 東洋의 獨特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合理化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Weber의 精神과 武士精神과를 한번 比較하여 보시지요.

< 司 會 >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近代化에 관한 Symposium”을 昨年에 했는데 그 速記錄이 震檀學報에 있습니다. 더 할 質問은 많겠으나 時間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그만 끄치겠습니다.

9月 28日

< 司 會 >

社會階層이란 問題는 現代社會을 理解하는데 不可缺한 社會學的 課題의 하나입니다. 特히 社會發展의 程度에 甚大한 差異를 가진 多樣한 部分社會로서 構成되고 있는 所謂 後進社會에 있어서는 社會階層構造의 理解없이는 어떠한 效果的인 社會開發도 圖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社會階層問題를 오늘의 論題로 택하여 본 까닭도 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서로 混同되기 쉬운 階級과 階層에 대한 概念規定으로부터 시작하여 韓國社會에 있어서의 階層의 實相을 農村과 都市로 區分 考察하고, 이어서 오늘날 肥大化의 一路에 있다고 하는 中間階級の 實體와 그 特有한 階級的 性格 및 階級意識등에 關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順序에 따라 오늘의 심포지움을 進行하겠습니다.

階級과 階層의 概念에 대하여

黃 性 模

過去 一世紀동안 社會科學에 있어서 階級の 問題처럼 허다한 論爭의 對象이 된 것은 없었다. 그것은 現實政治分野에 있어서 數많은 사람들의 政治的 運命

에도 關聯되는 것이 었다. 19世紀的 階級概念이 發生한지 1世紀가 지난 오늘 날에 있어서도 階級の 概念에 一致된 見解를 發見하지 못하고 있는 채 社會階級の 現實的 樣態變化는 過去의 階級概念에서 窮極的인 結論을 얻기 어렵게 하고 있는 중 새로운 要因이 登場함으로써 階級概念의 解明은 새로운 不透明性을 띄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살피고져 하는것은 社會科學的 分析的 立場에서 階級과 階層이 어떠한 共通點을 갖이며 反面에 어떠한 差異點을 지니고 있는가를 實明確性을 賦與하고자 하는데 있다.

階級이라는 것이 어떻게 發生했는가? 그리고 階級の 概念은 어떠한 關聯性에서 構成되게 되었는가? 이것은 歷史的인 事由에서 說明되지 않으면 안된다. 産業革命이 現代工業社會의 基礎를 마련한것은 事實이지만은 現代社會의 構造와 機能을 現實化한것은 무엇보다도 技術發達로 因한 광대한 生産力을 과시했던 19世紀 以後 부터라 하겠다. 그것은 技術面에서는 工業化過程이 였고 制度面에서는 資本主義發達過程이였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重要한것은 이와 같은 過程이 어떠한 條件 밑에서 이루어 졌는가 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階級이라는 事實을 理解하는데 어떠한 觀念을 갖고 임했는가에 直接的으로 關係하기 때문이다. 條件이라는 것은 歷史的 產物이기도 하면서도 經驗的存在인 人間에게는 條件의 歷史性 보다는 條件의 現實的 作用에서 條件에 대한 價値觀을 構成하는 법이다. 이와같은 의미에서는 19世紀初葉의 英國勞動者들 에게는 그들이 處身해야 했던 勞動條件이 資本主義가 갖었던 歷史性보다는 現實社會를 評價하는 準據基準이었던 것이다.

Manchester, Nottingham 및 Lancashire 등 여러 工業地帶에 있어서의 工業勞動力이 初期工業化時代에 있어서 어떻게 動員되었는가는 具體的으로 그 當時의 條件을 아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1795(貧民法)~1833年(Althorp 卿法案)間은 強制勞動, 低賃金, 長時間勞動, 婦女 및 少年勞動時代로서 特徵 지을 수 있었든 것이다. 이와같은 勞動條件의 對象이 되는 要素는 말할 必要도 없이 社會的으로 無權利한 存在, 家庭的으로 生活基盤을 喪失한 사람들, 土地所有에서 追放當한 農村人口 들이였다. 그들은 人間的待遇의 對象이기 보다 低廉한 勞動搾取의 對象이였다. 結果는 實收入의 下落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人間으로서의 勞動者의 尊嚴性이라든지 勞動者를 위한 社會政策의 必要性을 느끼지 않했던 企業家의 態度에서 結果되는 것이였기는 했지만, 如何間 이와 같은 工業勞動力을 기초로 해서 完成된 것이 工業社會의 터전이 마련 되었든것이다. 이와같은 英國의 初期工業化過程의 모델은 多少間 그後 새로히 發生했든 諸工業社會에서도 볼 수 있다. 東洋諸社會 특히 今世紀

3·40年代의 우리 나라의 工業勞動力이 어떠한 社會成分에서 構成되었는가를 生覺할 때 英國에 있어서의 19世紀前半紀의 그것과 많은 類似點을 發見하는 것이다.

한가지 重要的 事實은 1811年에서 시작하여 數年間 계속했던 Nottingham의 機械破壞運動(Luddites)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勞動者의 貧窮化의 原因이 機械的 生産속에 있다고 생각하였던 勞動者들이 機械를 憎惡의 對象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왜 이 事實이 重要的가 하면 그것은 19世紀 동안을 통해서 社會思想家들이 스스로 헤매나오지 못하였던 混沌된 概念 즉 資本主義的 生産樣式과 機械的 生産樣式을 同一視하는 態度의 起源을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K. Marx가 工業樣式속에서 勞動榨取의 概念을 밝히려고 한것도 이와같은 思考方式의 所産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思考方式이 틀리지 안했다는 것은 그當時의 經驗世界에서는 資本主義的 工業樣式밖에 없었다는데서 말할 수 있다. 그의 階級概念이 勞動榨取理論의 直接的 產物이었다. 이 限度內에서는 經驗的이었다.

그러나 K. Marx의 階級理論의 難點은 그가 이것을 그의 歷史觀念속에 統合시키는 데에서 부터 시작한다. 그의 辨證法은 歷史社會의 變遷을 問題삼고 있는 것이 었지마는 그가 다른 歷史觀과 다른 點은 이와같은 變遷이 具體的으로 어떠한 原動力에 의해서 推進되고 있는가를 分析한 基礎 위 에 서 있었다는 點이다. 여기서 우리들의 關心은 K. Marx의 高度의 이데오로기性이 表現되는 그의 歷史觀의 糾明에 있는것이 아니고, 그의 階級理論이 어떠한 分析的 性格을 갖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그가 보기로는 歷史社會를 움직이게 하는 原動力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도 利害關係對立(葛藤)의 概念을 分析의 大前提로 삼는다. 葛藤이라는 現象이 있기 위해서는 마찰이 있어야 하고 그 마찰을 異質的인 要素들이 서로 對立相克 하는데서 시작된다. 이 異質的 諸要素가 그에 있어서는 Bourgeoisie와 Proletariat 라는 것은 새삼 말할 必要도 없다.

이것이 具體的으로는 英國의 初期工業化時代의 企業家였고 工業勞動者層이 었으나 K. Marx는 결코 이 두개의 社會集團만으로 社會가 構成된다고 主張하려고 한것이 아니다. 그가 階級概念을 分析概念으로서 Bourgeoisie와 Proletaria의 對立 위에서 構成하고 있는 根本態度에는 이 두개의 社會集團의 役割이 歷史社會變動에 가장 支配的인 影響을 주고 있다는 認識이 있는 것이다. 좀 더 說明하자면 그의 Bourgeoisie와 Proletariat의 對立概念이 分析概念이라는 뜻은, Bourgeoisie와 Proletariat의 對立을 經驗的 記述的으로 描寫할려는데 그 目的이 있는것이 아니고 이 兩者의 對立이 자아내는 機能的 本質面을 把握할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寫眞과 藝術作品을 비교해볼 때 藝術作品의 特色에도 비할 수 있다. 寫眞은 비록 藝術寫眞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角度에

서 對象을 正確하게 描寫하는데 그 機能이 있지마는, 그러나 藝術은 對象의 本質을 表現하는데 그 特色이 있는 것이다. 要컨대 그가 Bourgeoisie 와 Proletariat 를 對立시켰다는 이 사실은 그 후에와서 社會라는 것이 간단히 그 두가지 事實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多次元的인 作用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Bourgeoisie 와 Proletariat 의 對決만으로는 그 單純性を 피할 수 없다는 非難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非難은 어디까지나 社會를 描寫的인 立場에서 불러내는데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래 K. Marx가 擇하고자 했던 分析的인 概念의 用語로서의 Bourgeoisie 와 Proletariat 의 두개의 差는 事實 敘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敘述적으로 歷史社會를 말할 때는 Bourgeoisie 와 Proletariat 의 概念만으로서 始終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地主에도 言及하고 Lumpenproletariat 도 取扱하였고 Intelligentsia 의 役割도 考察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歷史的 敘述에 있어서는 모—든 社會階層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目的은 全體社會階層을 “寫眞”적으로 描寫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具體적으로 이 工業化되어 가는 社會가 變遷해 나감에 있어서는 어떠한 힘들이 作用하고 있는가를 탐색한 結果 여기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는 階級을 Bourgeoisie 와 Proletariat 에서 봤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이 兩階級만을 分析的 概念으로 採用하고 거기에서 資本主義社會의 變動의 原動力을 찾았던 것이다. 이點까지는 K. Marx 의 方法은 經驗的이었다. 社會學的으로 評價되고 採擇되어야 할點이 있다면 兩大階級の 葛藤에서 社會變動의 法則을 찾으려고 했던 그의 實證主義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指摘한바 처럼 그의 經驗的이고 分析的이고 實證的인 作業을 통해서 이룩된 階級理論은 그 自體로서는 K. Marx 의 階級理論의 本質에 까지 綜合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階級理論이 唯物史觀적으로 統合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데오로기의적으로 一貫되고 哲學的, 世界觀적으로 價値觀에서 統一되어야 K. Marx 의 階級理論이 成立되는 것이었다. 바로 이點이—다시 말하자면 그의 階級理論이 一面에 있어서는 社會學的 接近法에 立脚하면서도 他面에서는 이것을 이데오로기의적으로 統合한다는 科學과 哲學의 融合— K. Marx 의 階級理論을 學問적으로만 評價될 수 없고 問題를 價値觀的, 政治的으로 聯關시키지 않으면 안될 理由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들이 科學과 哲學은 分離되어야 하고, 그럼으로 해서 期待될 수 있는 沒價値性を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K. Marx 의 階級理論을 分解하여 社會學과 哲學으로 分類해야 한다고 하고 事實上 分解했을 때, K. Marx 의 階級理論은 無意味해지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의 階級理論에서 社會學이 分離되어 나온다면 그것은 한갓 幻想에로 變化할 것이오, 反面에 哲學이 消失된다면 그의 階級理論은 拘束力없는 資料集에 不過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分類가

可能하고 또 보람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K. Marx의 問題意識을 全的으로 看過하게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할것인가? 두말 할것도 없이 K. Marx의 階級理論을 價値自由的인 文獻化하자는 것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社會學이 發生할 當時에 歷史意識, 問題意識없이 社會學의 學問的 性格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때 問題意識이란 事實上 階級の 問題가 中心課題가 되어 있지 안했던가? 그러나 20世紀에 들어 와서 부터는 어땠었는가? 工業社會的 市民社會가 確固해진 터전 위에서 社會學은 歷史意識보다는 「現實科學」으로 「發展」하였던 것이다. 그 結果는 社會의 分化, 專門化에 따른 社會學自體의 分化, 專門化였다. Leopold von Wiese가 社會學의 獨立을 부르짖을 때 그것은 바로 社會學의 非歷史化, 非問題意識化를 가져왔다는 것은 아이로니—도 아니었고 天真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社會學의 “藝術的” 機能에서 부터 “描寫的” 機能에로의 移轉過程을 말하는 것이다. 市民社會의 科學으로서의 社會學은 여기에서 再生했다고 할 수 있다. Comte나 Spencer의 歷史意識은 市民社會의 確立과 더불어 死滅한 것이다. 이와같은 過程속에서 階級에 대한 社會學的 問題意識은 階層이라는 單純한 定義概念에로 轉化하는 것이다.

이것이 事實인가? 여기에 對答하기 위해서는 階級과 階層에 관한 現代諸社會學의 傾向을 分析해볼 必要가 있다.

社會學理論에 있어서 첫째 傾向이라는 것은 이른바 機能主義派——우리는 이것을 同調主義派(conformist-school)이라고 하고 싶다——에 의해서 代表되는 社會統合理論인바, 例컨대 T. Parsons나 R. K. Merton의 理論이 그것이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點은 要約해서 말하자면, 과거 K. Marx가 問題삼았던 Bourgeoisie와 Proletariat에 의한 利害葛藤의 階級社會는 現在에 와서는 그 性格이 달라지고 兩大階級の 葛藤에서 벗어나오는 社會變動의 推進力은 그 形式과 機能에 있어서 喪失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K. Marx의 階級理論은 時代的 機能에서 벗어났고, 그 代身에 現代社會——具體的으로는 美國社會등을 말한다——에서는 새로운 統合의 바탕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結論으로서는 過去의 對立的인 社會態度 代身에 統合的인 하나의 社會像을 當爲的으로 要求하게 되는것이다. T. Parsons가 “社會的行動의 構造”(Structure of Social Action 1937 N. Y.)을 주어진 社會體制(structure)와 이것이 가진 規範(Norm)——그가 Function이라고 할 때에는 이 Norm에 順應하는 同調的 行爲를 의미한다는 것은 到處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을 準據基準으로 하여 構成하게 됨으로서 社會的 行動의 方向을 status quo에 極限시켰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同僚 E. A. Shils와 더불어 이와같은 “社會的 行動”을 하나의 一般理論에 까지 普遍化 할려고 했던 것이다.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1951) 하나의 理論만을 普遍化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그것은 單一論을 志向하는 것인가? Hegel이나 K. Marx나 Comte가 그리 하지 않았던가? 이들은 모두가 辨證法에 있어서의 「綜合」을 自己들의 立場이라고 主張했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의 統一的 理論속에 異質的인 對立要素를 否定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共通하는 것은 그들의 「綜合」이란 社會學的 分析의 結論이 었다기 보다는 이데오로기의 綜合이 었는데 있다. 하나의 統一的인 社會像! 우리들은 奇異하게도 T. Parsons에서 이것을 본다. 그는 이제는 Bourgeoisie와 Proletariat의 葛藤理論이라는 것은 그대로 「現實」에 適用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現實」에 있어서 階級葛藤이라는 社會葛藤은 存續하고 있기는 하지만 (經驗世界), 그러나 그 形式과 內容은 社會變遷과 더불어 變化하고 있다는 것이다. (實證되지 않은 當爲的 要求) 이 말에는 숨길 수 없는 “描寫的”態度가 었보인다. 藝術과 寫眞은 同一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는 계속——아마 White Collar 社會學的 登場을 머리에 그리면서——K. Marx의 兩大階級の 葛藤概念은 이제 存續할 수 없다고 한다. 描寫的으로는 工業發達의 結果로서 中間階級이 發生해 있고 James Burnham이나 Wright Mills의 中間階級社會學은 이 새로운 社會集團을 問題 삼았다. 社會的 現象面에서는 이제 과거와 같은 二律的인 社會發展이라는 理論이 効力を 喪失해 가는것 같이 보인다. 事實上 中間階級の 發生은 社會의 여러面에서 水準化 平均化現象을 자아 냈다. 특히 收入의 水準化는 K. Marx의 理論에 本質的인 打擊이 되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일뿐이다.

K. Marx의 目的은 兩大階級の 葛藤이 社會變遷에 어떠한 役割을 하며 그 法則은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있었다고 할것 같으면, White Collar 社會學은 社會가 어떻게 分化해가고 어떻게 複雜한 次元이 더 加해져 가는가에 대한 敘述的인 滿足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機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이제 明白해 지는것은 社會科學의 가장 中心問題로 되어왔던 階級이라는 概念은 이제 中間階級이라는 새로운 階級の 登場으로 兩大階級の 葛藤모델 代身に 두개 以上の 階級の 構成論인 社會階層의 概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階層理論은 歷史的 問題意識보다 社會構造에 대한 敘述的·描寫的 方法에 立脚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問題는 階級理論에 代身하여 登場한 階層理論이 그의 方法으로서 元來 階級概念의 基本的인 것으로 看取해오던 利害關係에서 야기되는 社會學的 諸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가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White Collar 社會學이나 특히 T. Parsons의 하나의 統合理論이 過去의 階級的 諸問題를 經驗的으로——다른 表現을 빌린다면 社會學的으로——克服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解明해야 하는 것이다. 이 問題에 대한 解答이 觀念的 乃至는 價値觀的 性格의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社會調查의 여러 資料에 立脚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그 資料로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美 國——R. Centers: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es*, Princeton 1949.

英 國——R. Hoggart: *The Use of Literacy*, London 1957.

獨 逸——H. Popitz, H.P. Bahrdt, E.A. Jüres, H. Kesting: *Das Gesellschaftsbild des Arbeiters*, Tübingen 1957.

佛蘭西——A. Willener: *Images de la société et classes sociales*, Bern 1957.

이중에서도 Popitz 와 Willener 는 특히 鑛山勞動者의 意識을 中心으로 해서 社會調查를 한 사람들이다. 冊題目에서 알 수 있는바 처럼 이 두사람에게는 勞動者가 어떠한 社會像을 갖고 있는가를 탐색하는것이 目的이 였다.

첫째, 두 사람의 調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勞動者가 種類如何를 莫論하고 何如間 어느 社會像을 갖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면 具體적으로 어떠한 社會像들인가 하는 點에서는 여러가지 差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結局 그 差는 自然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生活條件과 關係를 갖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 이 네개의 研究가 具體적으로 勞動者의 社會像이 어떠한 差에 立脚하고 있는가 하는 範疇를 Popitz 나 Willener 를 區別하고 있는데 Willener 는 ①社會經濟的 範疇 ②職業範疇 ③相反對立的 歸屬性 ④階級鬭爭 ⑤社會的 特權 ⑥政治的 範疇 라는 6개의 觀點에서, Popitz 는 이것을 좀 더 一般化해서 ①靜態秩序 ②進歩的秩序 ③集團運命으로서의 相反對立感 ④集團運命및 個別的 葛藤으로서 나타나는 相反對立感 ⑤社會秩序改革 ⑥階級鬭爭을 理解하는 態度등에 따라서 人間이 社會像을 構成하는데 있어서의 中心的 思考方式을 포착하려고 하고 있다. 問題는 이 두개의 調查를 통해서 明白해진것이란 勞動者는 얼마만큼 K. Marx 의 階級鬭爭觀을 그대로 保持하면서 社會像을 構成하고 있는가 인데 Willener 의 調查에서는 10%, Popitz 에서는 1%가 여기에 該當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事實이다. 分明히 낡은 階級觀은 사라진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Willener 나 Popitz 는 그들의 6個의 範疇를 結局에 가서는 두개의 基本的인 社會像에로 歸納시킬 수 있다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 이點에 있어서는 Centers 도 同一하다. 그도 여러 社會階層과 社會階級사이에서 “靜態”를 希望하는 社會像과 “變動”을 要求하는 社會像으로 區別한다는 것이 完全히 뜻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Willener 는 말하기를 「階層……는 連續的(社會…筆者)像을 包括하고 있는 反面에 階級이란 相克對立的 集團을 表示한다」고 하면서 그의 調查에 立脚하여 「社會的 上層的 序列에 있는 사람과 社會的 下層序列에 있는 사람의 社會像에는 根本的인 差가 있음을 否定할 수 없다……調查對象者

들 중에서 “下層”의 範疇에 속하는 사람들은 (質問에 대해서…筆者) 階層이라는 觀念에서 對答하는 것이 아니고 階級이라는 立場에서 對答하는 것이다. 反面에 “上層”의 範疇에 속하는 사람들은 階級보다도 階層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 하는것이 더 흔히 볼 수 있는 傾向을 가지고 있다」(p. 206, 208). 같은 結論을 Popitz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階級과 階層을 말할 때 相反對立構造(Dichotomie)와 階位構造(Hierarchie)로서 表現한다. 「우리들과 이야기 한 모든 勞動者, 그리고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間에 우리들이 規定한 定義에 따라 한 社會像을 가지고 있었던 勞動者들은 社會를——不可避한것, 혹은 避할 수 있는 것, 서로 交通할 수 없는 것 혹은 “同僚的”인 것——의 相反對立의로서 보는 것이다.……이에 反해서 事務員은 그의 위에 있는 上司를 認定함과 동시에 그의 밑에 있는 部下도 認定하는 것이다. 그는 그 自身을 中間에 있는 것으로 自認할 뿐더러 社會的 階層에 대한 날카로운 區別能力과 銳敏性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理解해야 할것은 事務員은 社會를 工業勞動者의 경우 처럼 相反對立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階位的으로 보는 것이다」(p. 237, 242) Centers 또한 中間階級과 勞動者階級에 의해서 美國社會가 構成되고 있음을 말하면서 그들 각己가 階層으로서 지니는 特徵은 “信念과 觀念”, “家族”, “金錢”이라는 範疇에서 區別될 수 있다고 한다. 「中間階級の 構成員에게는 金錢收入이라는 것이 小規模事業을 所有한다거나 工場을 經營한다는 中間階級에의 歸屬性을 위해서 가장 重要한 基準인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어떠한 形式이든 獨立을 말하는 것이다…(이와는 反對로…筆者) 우리들은 勞動階級에 歸屬되는 가장 特徵的인 標識은 “勞動한다”는 것이 自己의 生計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認識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이와 같은 特徵의 差는 「事務勞動과 肉體勞動 뿐만 아니라 俸給勞動과 賃金勞動間의 相立的構造(dichotomie)는 이것들이 勞動階級에의 歸屬性을 위한 여러 基準이 된다는 뜻에서 階級區分의 重要한 基盤이 될뿐만 아니라 또한 心理的으로 事務員들로 하여금 自己들을 中間地位와 同一化 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p. 99~100, 102) 그러나 上記 세 사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事務員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俸給의 最低에 따라서 兩分될 수 있는 可能性은 언제라도 엿보이는 것이다.

以上の 調査에서 얻을 수 있는 社會學理論的 結論으로서는 階層의 階位的構成이 上下 서로 一連性을 유지 한다는 社會像에서는 秩序와 統合의 概念만이 作用할 수 있고 反對로 相反對立的인 階級構造의 相克像을 念頭に 둘 때에는 自衛衝動, 強制, 意見對立의 觀念이 모—든 意見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前者를 現秩序維持의 傾向으로서 特徵지운다면 後者를 變化를 希求하는 欲求로서 規定할 수 있다. 經驗的으로나 理論的으로나 이들 調査가 一致하는 點은 社會階位序列의 上部에 속하는 사람들은 社會를 地位의 序列的·一連的 階位構

造로 보며, 序列의 下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區別的·對立的인 相反構造에서 社會를 본다는 것이다. Hoggart에 있어서 볼 수 있는바 처럼 勞働者自身이 自己들과 上司를 us와 them으로 區別한다든지 Popitz의 die da oben과 wir hier unten의 區別이라든지 Willener의 ceux qui sont en haut와……en bas의 對立感은 이것을 實證한다.

이 事實은 19世紀中葉에서부터 社會學이 問題삼아왔던 그點 즉 階級觀的 社會像이 20世紀의 中葉에서도——그 동안 中間階級の 發生이라는 새로운 事實에도 불구하고——理論構成의 資料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 何如間 한 社會에 있어서 支配的 地位에 있는 集團은 그들이 現存諸關係에서 享有할 수 있는 相對的인 滿足感을 現存諸關係를 秩序面에서 그리고 合理的인 것으로서 理解함으로써 表現하는 것이다. 反對로 下層集團은 그들의 立場을 表示하는 것으로서 對立과 區別을 強調하는 傾向을 나타내는 것이다.

社會學理論에서 든지 혹은 一般的인 社會意識에서 든지 間에 社會의 模型을 構成한다는 作業에는 이데오로기의 契機가 숨어 있는 법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機能主義 혹은 統合主義理論의 當然한 結果로서 期待될 수 있는 階位的 혹은 階層的 社會像은 現狀維持와 現實滿足의 이데오로기와 같은 範疇에 속한다. 따라서 相反對立的, 葛藤的 社會像은 不滿과 現在地位의 變化를 要求하는 表現인 것이다.

社會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한 方法으로서의 相反對立的인 把握態度는 우리들이 봐온 限에 있어서는 否定할 수 없는 社會的 事實이다. 이 事實은 社會學的 階級理論에 대하여 하나의 經驗的 根據를 提供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이 事實을 一般化해야 한다는 이데오로기의 統合態度에 우리들의 몸을 맡길수는 없는 것이다. 現實속에는 分明히 調和에 대하여 逆機能을 하는 여러 일들이 있다. 우리들이 봐온 現代工業社會의 어느部分에는 틀림없이 相反對立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K. Marx의 理論과는 그리 直接的인 關聯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 事實 때문에 社會가 兩大階級으로 分裂할 것이라는 經驗的 理論도 成立할 수 없다.

階級과 階層的 問題를 論할때 처음에는 K. Marx의 이데오로기態度 때문에, 最近에 와서는 統合理論의 當爲의 要求 때문에 社會學的 事實과 價値觀的 促進사이에서 學問이 科學의 機能을 遂行하는데 많은 支障을 받아왔다. K. Marx가 分析概念으로서 階級概念을 經驗的으로 構成했을 때에는 그것은 科學이었었지만 그의 이데오로기의 世界像은 이데오로기였다. T. Parsons가 그의 統合理論에서 葛藤과 對立을 逆機能(Dysfunction)으로서 理論構成의 要素에서 除去했을 때 그것은 規範的 要求였다. White collar 社會學이 中間階級을 Bourgeoisie와 Proletariat와 같은 次元에서 併合시킴으로서 K. Marx의 階級葛藤論을 中和

시킴으로서 現狀維持에 功獻했다. 그러나 이 모—든 理論에게 共通한 것은 그것들이 一元論的 立場을 보인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汎階級理論도 反眞理일 것이며 汎統合理論도 半虛僞일 것이며 汎中間階級理論 또한 半眞理를 免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階級과 階層은 社會의 動態와 靜態의 兩面일 뿐이다.

(註) 講演의 理論的 準據는 나의 恩師 Ralf Dahrendorf 教授의 아래와 같은 論文과 책들인 것이다.

1. Struktur und Function: i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7/4 (1955)
2. Out of Utopia: Toward a Reconstruction of Sociological Analysis: 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LXIV/2 (1958)
3.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London, 1961
4. Toward a Theory of Social Conflict, *Conflict Resolution* II/2 (1958)

現代 韓國農村階層의 實態

李 萬 甲

從來 韓國農村人口의 社會階層을 研究하는 方法은 主로 經濟學的 方法이었다. 이 方法에 依하면 土地의 所有 農村經營規模 農家의 財產 및 所得 消費等의 差異에 따라 農村社會의 階層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經濟的 要因 以外에 다른 要因을 고려 하는 것도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卽 上述한 諸經濟的 要因과 더불어 韓國社會에 傳統的으로 내려오는 門中——이는 대개 양반階級에만 局限된 것이지만——과 班常의 要因은 過去에 있어서는 물론 오늘에 있어서도 韓國農村社會의 階層形成의 重要한 要因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過去의 身分的 要因以外에 教育水準 社會參與等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土地所有問題에 관해서 말하자면 해방전 韓國에서 農業에 從事하는 人口중 (朝鮮總督府 調査에 依할것 같으면) 小作이 全體의 46.5%, 自作이 31.0%, 地主는 0.8%에 不過하며 自作도 17.5%뿐이었다. 大多數의 農民은 地主에 隸屬되었으며 그들은 점점 貧窮하여 적지 않은 數가 더 낮은 階層으로 轉落하고 또는 農村을 떠나 流浪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후 自作農이 急激히 增加하였다. 이러한 自作農의 急增은 勿論 農地改革의 結果라 하겠지만 그러나 農地改革의 直接的인 結果라고 하기 보다는 農地改革을 豫想한 地主, 小作人間의 去來에 依해서 이루어진 것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49년 6월의 農地改革에 이르는 解放後 4년間的 某種의 農地改革이 不可避하다는 生覺이 巷間에 流布되었으며 이 때문에 土地所有者가 싼 값으로 土地를 轉賣하는 일이 盛行